

격려사

계절의 청명함으로 국제선서화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선의 목적이 참된 나를 깨닫는 데 있는 만큼 선목을 펼치는 사람에게
는 구도의 길이 되고, 감상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을 비우고 선의 향기
를 체험하게 하는 수행과 정진의 방편이기도 합니다.

금번 선서화전은 미주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류의 평화공존
을 이루겠다는 서원으로 선서화의 깊은 의미를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
고, 또한 한국문화원 건립과 평화대학교 설립의 뜻을 함께 담고 있으니
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.

마음으로 감동하고 삶의 지표로써 깊은 여운을 갖고자 함이기에 경
암스님의 원력과 신심은 대중에게 깊은 뜻으로 다가옵니다. 오늘 이 자
리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법향이, 사부대중의 공덕을 잇는 참다
운 인연이기를 바라며, 무량한 감동으로 회향하기를 축원합니다.

불기2556년 11월 5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